

SOCIETY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광주 아트패스’ 반응 좋네... “지역상권 활성화”

북구, 평두메습지 우수성 홍보 주민 참여 생태 프로그램 운영

광주 북구는 지난해 광주 최초로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평두메습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주민 참여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습지 보전과 환경 실천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들에게 직접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와 ‘평두메습지 시민 과학 생태학교’로 구성됐다.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는 지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습지 생물 둘러보기’, ‘생물 소리 들어보기’, ‘나만의 평두메습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5월13일까지 총 280여명의 어린이가 탐사대 활동에 참여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운다.

평두메습지 시민 과학 생태학교는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과 5월28일 운영된다.

평두메습지에 서식 중인 생물을 탐사·기록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방향을 논의하는 등 환경보전 분위기를 확산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생태학교에 초·중·고교 환경 교사를 참여자로 모집해 학교 교육 현장으로 확산시켜 나갈 구상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동구, 스마트관광 플랫폼 앱...매출 5200만원 돌파 호텔아트하임 등 가맹점 199개·회원 7640명 가입

광주 동구가 운영 중인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광주 아트패스(Artpass)’가 출시 7개월 만에 매출액 5200만원을 돌파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 아트패스의 상품 결제 건수와 매출액은 각각 2701건, 5243만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보면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동네라이프’가 2395만원(751건)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이어 비엔날레 GB패스 1950만원(872건), 아트로 네트워킹 126만원(84건), 씨네뮤지엄 in 광주 116만원(47건), 해남 등 인접 시·군 연계 상품 96만원(44건), 맞춤형 미미패스 93만원(68건) 등의 순이었다.

광주 아트패스는 식음, 숙박, 관광지 등 아트패스 가맹점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 여행객의 반응이 뜨겁다.

올해 3월 기준 7640명이 광주 아트패스에 가입했으며, 199곳(동구 176곳, 남구 21곳, 서구 2곳)이 가맹점에 등록됐다.

그중 동네라이프는 지난해까지 별도의 사이트에서 운영됐지만 관광플랫폼 일원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광주아트패스에서 운영 중이다.

동네라이프는 2박 이상 광주 동구에 숙박을 예약하고 머물 때 1박당 최대 30%(2만원 한도 내) 할인을 지원한다. 동네라이프 회원이 참여한 숙박업소는 지난해 동구와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호텔아트하임,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등



입력 광주 동구청장이 광주아트패스 콘텐츠를 살펴보고 있다.

11곳이다.

동구가 지난해 4~8월 시범운영 기간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광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관광기업의 우수사례를 나누며 여행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공유한 것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콘텐츠, 가맹점 확보를 위해 광주아트패스 설명회, 동구 스마트관광 포럼 등

도 개최하며 플랫폼 활성화에 앞장섰다.

동구는 아트패스 자체 기획 관광상품 ‘아트로’를 판매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 까지 음악투어, 비즈니스 와인 투어, 아트로 네트워킹, 독립영화 인문 투어 등을 진행하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맞춤형 ‘미미패스’를 통해 음식점, 카페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미술관, 박물관 연계 상품인 ‘뮤지엄패스’는 우제길미술관, 비움박물관, 드림미술관,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등 최대 60% 할인된 금액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아트패스 가맹 업체와 협업해 지난해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프로모션 상품 ‘아트로 투어’도 456건 판매됐다. 여행객은 핸드드립 체험, 도슨트 투어, 네트워킹 파티 등에 참여하며 동구만의 콘텐츠를 경험했다.

동구 관계자는 “여행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문화 등을 결합한 여행상품을 신규 개발하고 신규 유류가맹점을 지속해서 모집하겠다”며 “체류하는 관광 인구를 높이고,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26일 개최하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은 1박2일로 즐길 수 있는 숙박 패키지가 광주아트패스에서 판매 중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영산강청,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지원 나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다음달 1일부터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영산강청은 전년 대비 하수도 분야 환경기초시설 24개 사업을 추가로 준공해 처리효율을 높였다.

또 하수관로 노후화와 계절적 수질변화 등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지난해 전년 대비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건수가 46.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건강보양식 나눔 23일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2025 동원사가 만드는 어르신들의 행복잔치’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 300여명에게 건강보양식을 대접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 도심 축제 ‘충장 라온페스타’ 열린다

26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K-팝 경연 등 운영

광주 동구는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2025 충장 라온페스타’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즐거움(라온)’이라는 이름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충장과 지하상가 일대에서 선보인다.

올해는 ‘라온하게 충장이 ON다!’란 주제로 상설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상설 프로그램에서는 남녀노소, 장르 불문 참여 가능한 K-POP 경연대회

인 ‘충장 K-스타 챌린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지하상가 문화의 날’이 열린다. 무료 공연에 체험, 경품 이벤트, 플라마켓, 버닝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4월부터 11월까지 충장과 지하상가 일대에서 선보인다.

6월 13~14일 충장로1가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는 ‘서서 비어(스탠딩립)’, ‘DJ 공연’, ‘미션 어드벤처’, ‘코스튬카니발’ 등의 행사를 준비 중이다.

기획 프로그램은 여름에 만나는 크리스마스 테마로 한 ‘8월의 라온 크리스마스’를 선보인다. 인공눈과 비눗방울, 물총 이벤트, 경품 증정 등 이색적인 겨울 체험으로 무드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충장로 상인과 청년 창업가가 참여하는 ‘충장 4·5 도깨비장터-충장 놀장’은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된다. 행사는 충장 상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입력 청장은 “올해 충장 라온페스타는 1년 내내 충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며 “충장로에 오셔서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남부지방 꽃가루 날림 시기 하루 빨라져

기상청 ‘2025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

광주를 포함한 남부지역에서 2014~2024년 수목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가 2007~2017년 평균보다 1일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3일 ‘2025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등 8개 도시(강릉·대전·전주·전주·광주·대구·부산·제주)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하는 대표 식물 13종의 꽃가루 농도를 단계별로 정리한 달력이다.

이번 달력은 2007~2017년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2019년판을 갱신한 것으로, 2014~2024년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기상청 분석을 보면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역(대구·부산·광주·전주)에서 봄철 수목류(오리나무·참나무·참나무 등)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1일 빨라졌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강한 잔디류의 경우 봄과 가을 2차례 꽃가루가 날리는데 남부지역에서는 3일 줄었다.

전국적으로 봄철 수목류(오리나무·참나무·참나무 등)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3일 빨라졌다.

지역별로는 제주 7일, 서울·대전·강릉 5일, 대구·부산·광주·전주 1일씩 앞당겨졌다.

잔디류는 지역별로 꽃가루 날림 지속 기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중부와 남부지역의 경우 각각 10일과 3일씩 줄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34일 길어졌다. 가을철 잡초류의 꽃가루 날림 지속 기간은 전국 평균 5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꽃가루 달력은 꽃가루 날림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활용될 자료다.

꽃가루 달력은 서울과 제주, 부산 등 8개 도시의 대표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에 대한 꽃가루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최신판 꽃가루 달력이 알레르기 환자들의 야외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로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보전 기상 정보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행 지역소상공인

꽃분리

동명동 핫플 플리워 카페

꽃분리

- 꽃·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 부케드라이 (부케액자, 부케무드통, 부케캔들)
- 커피디저트 (한살리오콜라세키)

전남여고 • 장동로타리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

010. 6411. 7975

m.blog.naver.com/qwer445566 instagram.com/flower_buni